

# 홀로 된 여자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old widows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대학원생 조 옥희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부 교수 신 효 식

순천대학교 가정교육과

부 교수 박 옥 임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

Graduate student: Cho, Ok H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

Associated Prof.: Shin, Hyo Shick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unchon National Univ.

Associated Prof.: Park, Ok im

##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및 절차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riables which influence old widows' life satisfaction.

The subjects were 318 old widows over sixty years old in Kwangju.

The data were taken by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frequency distribution, percentile, ANOVA, scheffes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ajority of old widows were low educated and 36.2% were poor in health. Their living aspect that they live together with their married child was 74.2%. Degree of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was very low. 42% were satisfied or very satisfied

with their pocket money. 76.4% had religions. 25.5% had no old friend.

Solidarity with their children was generally good.

In their economical status, 8.4% of living together with married children were low while 35.3% of living separately were.

60% thought that they were important person at home. 35.5% answere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their living condition and 6% were very satisfied.

2) The variables which affect the old widows' life satisfaction were age( $p<0.05$ ), state of health( $p<0.001$ ), degree of pocket money( $p<0.01$ ), economical status( $p<0.05$ ), roles at home( $p<0.01$ ), solidarity among their relatives( $p<0.001$ ), solidarity with their children( $p<0.001$ ), status in home( $p<0.001$ )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p<0.05$ ) and existence of old friend( $p<0.01$ ).

3) The significant orders which affect the old widows' life satisfaction were status in home first of all ( $\beta=0.26$ ,  $p<0.001$ ), objective solidarity with their children ( $\beta=0.21$ ,  $p<0.01$ ), subjective solidarity with their children( $\beta=0.19$ ,  $p<0.01$ ), state of health ( $\beta=0.15$ ,  $p<0.01$ ) and economical status who living with married child ( $\beta=0.15$ ,  $p<0.01$ )

## I. 서 론

6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 과정은 산업구조 변화, 핵가족화 및 가치체계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변동을 가져왔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 사망율과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 및 노년인구 증가는 노인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사망율이 낮아 나이가 들수록 성비가 점차 줄어들고 여자노인의 수가 훨씬 많아지게 되고, 결혼연령의 차이가 여자 미망인의 발생율을 높이게 되어 노년기의 인구학적 현실은 홀로 된 여자노인이 대부분이다. 여자 노인은 배우자보다 평균 10여년을 더 오래 살면서 노화에 따른 은퇴나 무직으로 인한 재정적 궁핍, 잦은 출산·육아·가사 등으로 인한 여성 특유의 건강문제, 낮은 교육수준과 사회참여로 가정적·사회적으로 소외되어 후적응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현재 60세이상인 한국여성들은 엄격한 가족주의 가치관과 시대의 격변속에서 살아 왔고 의존적으로 사회화된 세대이며, 자녀의 가족가치관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우기 홀로 된 여자노인은 성역할의 차이 및 가부장적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재혼이 남자보다 어려우며, Bell(1963)에 의하면 Widow의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에 Widower보다 사회적·심리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갖는다고 하였고, 구자순(1983)은 배우자의 사망이 혼인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상태에 적합한 사회적 역할을 재조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하였다.

노인문제 중 기본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측면은 노인이 자신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느냐 하는 삶의 질적인 문제라고 보이며 생활만족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노인 복지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본다면, 노인의 생활에 만족을 가져다 주는 또는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수립에 중요한 관건이 되리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홀로 된 여자노인의 실태 및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중요도를 분석함으로써 홀로 된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 이들을 위한 복지 지원 대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여자노인의 특성과 실태

사회인구학적인 면에서 볼 때 여자노인의 경우 평균 수명이 남자노인보다 5~7년이 더 길고 배우자와의 연령차이가 2~3년은 되기 때문에 적어도 7~10년의 세월을 배우자없이 홀로 노후를 보내지 않으면 안된다(이윤숙, 1984). 이와같은 사실은 윤종주(1988)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65세 이상의 여자노인은 유배우자율이 30.4%, 남자노인은 85.7%이며, 80세 이상의 경우는 여자노인은 96%가 사별로 인해 혼자 지내고 있고, 남자노인은 약 4.2%만이 혼자 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령이 높아갈수록 여성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고, 노인인구는 주로 여자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배우자 상실로 여자노인이 지녔던 지위, 권위까지도 흔들리게 될 뿐 아니라, 낮은 취업율, 긴 평균수명, 높은 무배우자율, 증가하는 이혼율, 남성보다 빠른 퇴직 등으로 남성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고 경제적 빈곤을 겪게 된다. 또 여자노인은 비교적 임금이 낮은 직종에 국한되어 남자노인의 월평균 수입의 41.6%였다(조병은, 1990). 또한 역할 면에서 종래의 가사 지휘권이나 며느리에 대한 전통의 전달자로서의 지위를 잃고 집보기나 아이보기의 보조적 역할의 지위로 전락(현두일, 1973)하였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소외감의 정도가 더욱 높고, 가족에의 통합과 자녀와의 결속도도 학력이 낮으며 무배우자인 여성노인의 인생만족도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조병은, 1990)

사회심리적인 면에서는 노년생활에서의 사회적, 정서적 안정은 경제적 자립이나 건강유지 못지 않게 중요하며 서로 영향을 준다고 본다. 여자노인의 사회적, 심리적 건강문제는 혼자 사는 경우에 더욱 증대해지고 심각해진다고 보여진다. 결국 홀로 된다는 것의 가장 부정적인 결과는 경제적 빈곤과 함께 배우자 상실에서 오는 정서적 부양의 결여에서 기인된다고 사료된다. 한국갤럽조사(1984)에 의하면 배우

자가 없는 노인들은 유배우자 노인(21%)보다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하였고(37%), 생활만족도에서도 유배우자(27%)보다 불만족율이 훨씬 높다고 보고하였다. (42%)

신체적인 면에서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만성적이고 퇴행성 질환을 더 갖고 있는 반면에 제한된 의료보험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많다. 성별에 따른 만성질환 유병상태는 여자노인이 53.7%, 남자노인은 43.4%로 여자노인이 더 높게 나타났다(한국인구보건원, 1989). 그럼에도 여자노인들에게는 돌보는 사람(Caregiver)이 적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조병은, 1990).

이상에서 노인인구의 다수를 점하는 여성노인은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불리한 조건과 특성을 내포한채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연구의 초점이 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적응과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생각된다.

### 2. 홀로 된 여자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선행 연구

생활 만족도란, 자신의 생애를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적어도 주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효율적으로 주위의 환경과 변화에 잘 대응해 나가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 없이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Kalish, 1975). 결국 생활 만족도는 개인의 정신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며, 개인의 기대 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라고 하겠다(Medley, 1977).

홀로 된 여자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연령 및 홀로 된 때의 연령

Cutler(1979)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이나 친구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는 반면 건강이나 가족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한다고 하였다. 멩회재(1985)는 노인의 고독감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Morgan(1976)은 홀로 된 노인들에

게 있어서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수입, 홀로된 때 연령, 인종, 배우자에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의 용이성, 건강, 그리고 가족관계 등의 상황적 요인들이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 2) 건강

McClelland(1982)와 Quinn(1983)은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보다 건강한 노인들은 그들의 생활에 더 만족한다고 하였고 Edwards & Klemmack(1973)은 건강한 노인이 사회적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련된다고 생각한 18개의 변수들 중에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가장 설명력 있는 변수중의 하나였음을 밝혀냈다.

최혜경(1984)은 노인의 건강은 노인과 그 자녀의 가족내 결속에 영향을 미쳐서 노인들이 건강할수록 가족내 결속도가 더 강해진다고 주장하였다.

### 3) 종교

Moberg(1970)는 종교적인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노인들이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하며,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종교적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여자노인의 생활 만족도가 더 높다고 했다.

김명자(1982), 김태현(1986)의 연구에서도 종교생활을 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

한편, 장상희(1983)는 종교가 사회적 고립감이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생활 만족도에 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 4) 생활수준

Kalish(1975)에 의하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해왔으며,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고 또한 혼자 남는데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는 노인의 생활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고 하였다. Charfield(1977)는 높은 수입과 경제적 안정이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중요한 변인이며, 은퇴한 노인의 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역할의 상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에 따르는 수입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며, 은퇴, 건강문제, 주거지 등은 수입이 많은 노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Medley(1977)는 경제상태가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닌 듯 하며 실제의 경제상태보다는 개인의 느끼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5) 용돈 만족도

박충선(1990)에 따르면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는 노인들은 적어도 기본적 생활이 유지되는 수준에서 자녀로부터 경제적 보조를 받고 간접적으로는 자녀들로부터 부모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노인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 6) 자녀 유대관계

Quinn(1983)의 연구에 의하면 노년기 부모와 성인기 자녀간의 애정, 의사소통, 부양만족, 가치관의 일치 등 자녀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최은영(1981)은 자녀 유대관계가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때 자녀 유대관계는 노인의 객관적인 조건 즉 교육, 가계소득, 건강, 결혼상태 등이 관계가 있으며 이 중에서 특히 건강이 자녀유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7) 가족내 지위

현두일(1973)에 의하면 여자노인은 종래의 가사의 지휘권이나 며느리에 대한 가문의 전통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잃고 다만 집보기나 아이돌보기 또는 가사의 일부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 8) 가정내 역할

최재석(1982)에 의하면 직계가족의 노인은 유아활동 중 『젓먹이 보기』를 제외하고 가사활동, 경제활동, 대외활동의 참여가 상당히 낮았다고 밝혔다. 이옥재(1979)는 의사결정 역할에 있어서 노인이 가정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약하여 계층별로 고소득층이 의의 참여의 비율이 약간 높으나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최은영(1981)은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은 가사 결정권자로서

의 감독권보다는 자녀 주도에 의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9) 친구관계

이남균(1980)에 의하면 친구관계의 원만성이 노화 과정과 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최신태·김종숙(1983)은 노년기의 친구관계는 동료애뿐만 아니라 안정감과 의존욕구의 충족감도 제공해 준다고 하여 노년기에 있어서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Baur와 Okun(1983)도 친구로부터 받는 무관심이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와 매우 높은 상관성이 있으므로 친구와의 접촉이 생활 만족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0) 사회활동

Knapp(1976), Bull & Aucoin(1975)은 사회활동에의 참여가 많을수록 노인의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Chapman & Beaulet(1983)은 사회활동에의 참여를 사회적 활동의 수준과 사회적 접촉빈도를 측정하고 이것이 노인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다. 김선희(1989)는 사회활동 참여도가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11) 친척과의 교류

Liang 등(1980)은 노년기에 있어서 사회적 조직망은 축소되고 가족이 중심적인 조직망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노인의 가족에로의 통합은 가장 큰 사회·심리적과제이며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켜 주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윤영(1990)은 친척과의 관계에 따른 결혼 만족도의 차이는 남자노인보다는 여자노인에게서 더욱 의미있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친척이 가깝게 있는 경우보다 멀리 있는 경우 결혼 만족을 더 낮게 느낀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하여 홀로 된 여자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연령, 홀로 된 때의 연령, 건강, 종교, 생활수준, 용돈만족도, 자녀와의 유대관계, 가족내 지위와 역할, 친척관계, 친구관계,

사회활동 참여 등의 여러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요인들은 특히 홀로 된 여자노인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의존적이며 전통적 가치관속에서 친족과 자녀중심의 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본다. 또한 일부 가족외에 친구나 사회활동으로 가족을 보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요인은 앞으로 중요도가 증가되리라고 생각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문제1: 홀로 된 여자노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한다.

연구문제2-1: 홀로 된 여자노인의 생활 만족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2: 홀로 된 여자노인의 생활 만족도는 가족 환경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3: 홀로 된 여자노인의 생활 만족도는 사회적 관계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홀로 된 여자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한가?

2. 척도의 구성

생활 만족도 척도: 생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edley의 도구를 번역·수정하여 사용한 김종숙(1987)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생활 만족도에 관한 두 가지 질문중 첫번째는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다 0점, 그렇지 않다 1점의 척도를 정한 후, 긍정적인 문항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재부호화하여 8개 문항에 대한 평균을 구함으로써 0점에서 1점사이의 범위를 갖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각 문항간의 내적 일관성은 KR=.7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두번째는 단일 문항으로, 매우 불만이다 0점, 불만이다 0.25점, 그저 그렇다 0.5점, 만족한다 0.75점, 매우 만족한다를 1점으로 하였다.

최종적인 개인의 생활 만족도는 위의 두가지 질문에 대한 각 응답자의 점수를 합한 것으로 생활 만족도의 범위는 0점에서 2점이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분류하였다.

\* 사회 인구학적 변인: 연령, 홀로 된 때의 연령, 홀로 산 기간, 건강, 종교, 생활수준, 용돈 만족도.

\* 가족 환경적 변인: 가족내 지위, 자녀 유대관계, 가정내 역할, 가족형태.

\* 사회적 관계 변인: 친척과의 교류, 사회활동참여, 친구(old friend)관계

### 3. 조사대상 및 자료처리

조사대상은 광주직할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홀로 된 여자노인으로 기혼 자녀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표집방법은 연구자가 노인당과 해당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면접조사(70명)를 하였고 중고등학교의 해당학생에게 설문지(380명)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예비조사는 91년 1월 14일~1월 22일에 걸쳐 50명에게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총 450명을 대상으로 91년 2월 4일~2월 19일에 실시하여 342부가 회수되었는데 이 중 본 연구에 적합한 318부를 분석하였다.

자료처리는 전남대 전자계산소에서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산술평균을 구한 뒤 일원분산분석, Scheffé Test, 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생활실태

####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N=318)	백분율(%)
연령	60 ~ 65	75	23.6
	66 ~ 70	68	21.4
	71 ~ 75	62	19.5
	76세 이상	113	35.5
홀로된 때의 연령	결혼~29세	32	10
	30 ~ 39세	50	15
	40 ~ 49세	59	19
	50 ~ 59세	88	28
	60 ~ 69세	61	19
	70세 이상	28	9
홀로 산 햇수	10년 이하	86	27.0
	11 ~ 20	84	26.5
	21 ~ 30	56	17.6
	31 ~ 40	42	13.2
	40년 이상	50	15.7
교육수준	학교에 다닌적 없다	178	56
	국민학교 중퇴	28	8.8
	국 중	84	26.4
	중 고	14	4.4
	고 중	5	1.6
	대졸 이상	.	.
기 타	9	2.8	

변인	구분	빈도(N=318)	백분율(%)
종교	없다	75	23.6
	있다	243	76.4
	기독교	76	31.3
	불교	115	47.3
	천주교	35	14.4
	유교	10	4.1
	기타	7	2.9
건강상태	아주 건강하다	16	5.0
	건강하다	105	33.0
	그저 그렇다	82	25.8
	건강하지 못하다	92	28.9
	아주 건강하지 못하다	23	7.3
가족형태	동거형	236	74.2
	결혼한 장남	169	53.1
	장남이외의 아들	39	12.3
	결혼한 딸	28	8.8
	별거형	82	25.8
	미혼자녀	17	5.3
	손자녀	27	8.5
	혼자서 산다	38	11.9
용돈액	1 ~ 3만원 미만	70	22
	3 ~ 5 "	57	17.9
	5 ~ 7 "	79	24.9
	7 ~ 10 "	18	5.6
	10 ~ 15 "	49	15.4
	15 ~ 20 "	16	5.1
	20 ~ 30 "	18	5.6
	30만원 이상	11	3.5
용돈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24	7.5
	만족한다	110	34.6
	그저 그렇다	123	38.7
	부족하다	51	16.0
	매우 부족하다	10	3.2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2) 생활 실태

① 생활수준

동거형 가족의 노인은 86.9%가 중류생활에, 8.4%가 하류생활에 속한다고 하였고, 별거형 가족의 노인은 58.6%가 중류생활에, 35.3%가 하류생활에 속한

다고 응답하였다(<표 2>).

이는 별거가족의 노인들이 자녀로부터 생활을 보조받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우며 자신이 버는 경우에도 임금이 낮은 직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② 사회활동 참여

조사대상자의 사회활동 참여 정도를 살펴본 결과

〈표 2〉 동거가족노인과 별거가족노인의 생활수준별 분포

생활수준	구분	동거가족의 노인		별거가족의 노인	
		N	%	N	%
상	상	3	1.3	2	2.4
	하	8	3.4	3	3.7
중	상	130	55.1	20	24.4
	하	75	31.8	28	34.2
하	상	18	7.6	17	20.7
	하	2	0.8	12	14.6
계		236	100.0	82	100.0

③ 가족내 지위

〈표 4〉에 의하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노인의 비율이 60%인 점을 보아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생활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사료된다.

④ 친구관계

모든 속마음을 숨김없이 터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수의 분포는 〈표 5〉와 같다.

⑤ 친척과의 교류

조사대상자의 친척과의 접촉빈도를 살펴보면 거의

〈표 3〉 사회활동에의 참여 정도별 분포

참여빈도	구분	종교모임		노인정. 노인학교		동창회.계. 친목회		취운동모임		사회봉사활동		친족.종친회	
		N	%	N	%	N	%	N	%	N	%	N	%
거의 매일 참여한다		15	4.7	21	6.6			12	3.8			2	0.6
일주일에 2~3번		39	12.3	11	3.5	1	0.3	1	0.3		0.6	1	0.3
일주일에 1번		56	17.6	6	1.9	2	0.6	1	0.3	2	0.3	3	0.9
한달에 2~3번		17	5.3	5	1.6	23	7.2	3	0.9	1		8	2.5
한달에 1번		32	10.1	12	3.8	53	16.7	3	0.9		0.9	13	4.1
일년에 2~3번		34	10.7	4	1.3	15	4.7	2	0.6	3	0.9	51	16.0
일년에 1번		22	6.9	3	0.9	7	2.2	5	1.6	9	2.8	31	9.7
전혀없다		103	32.4	256	80.5	217	68.2	291	91.5	300	94.3	209	65.7
계		318	100.0	318	100.0	318	100.0	318	100.0	318	100.0	318	65.7

〈표 4〉 가족내 지위별 분포

가족내 지위	N	%
항상 그렇다	86	27.0
대체로 그렇다	105	33.0
보통이다	78	24.5
별로 그렇지 않다	40	12.6
전혀 그렇지 않다	9	2.8
계	318	100.0

〈표 5〉 친구수 분포

친구의 수	N	%
없다	81	25.5
1 ~ 3명	186	58.5
4 ~ 6명	36	11.3
7 ~ 9명	8	3.5
10명이상	7	2.2
계	318	100.0

는 〈표 3〉과 같다.

취미활동 모임이나 사회봉사 활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노인 자신의 경제적, 신체적 이유도 포함 된 것으로 사료된다.

매일 만난다 9.4%, 일주일에 1번 16.7%, 한달에 1번 6.3%, 명절이나 제사때 만난다고 39.3%으로 주로 명절이나 제사 등 집안행사때 주로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⑥ 가정내 역할



〈표 6〉 친척교류 정도별 분포

접촉빈도	N	%
거의 매일 만난다	30	9.4
일주일에 1번	53	16.7
한달에 1번	90	28.3
일년에 1번	20	6.3
명절이나 제사때	125	39.3
계	318	100.0

조사대상자의 가정내에서의 역할 수행 정도를 보면 〈표 7〉과 같다.

⑦ 자녀 유대관계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객관적 자녀 유대관계와 주관적 자녀 유대관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⑧ 생활 만족도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홀로 된 여자노인의 생활

〈표 7〉 가정내 역할 수행정도별 분포

역할수행정도	구분	가사 담당자		양육 담당자		경제및대표자역할		의사결정자	
		N	%	N	%	N	%	N	%
주로 자신이 한다		126	39.6	92	28.9	73	23.0	74	23.3
가끔 자신이 한다		112	35.2	90	28.3	93	29.2	144	45.3
거의 자신이 하지 않는다		80	25.2	136	42.8	152	47.8	100	31.4
계		318	100.0	318	100.0	318	100.0	318	100.0

〈표 8〉 자녀유대관계 정도별 분포

유대정도	구분	객관적 유대관계		주관적 유대관계	
		N	%	N	%
상(1~2)		154	48.4	189	59.4
중(0)		77	24.2	46	14.5
하(-1~-2)		87	27.4	83	26.1
계		318	100.0	318	100.0

객관적 자녀 유대관계: 레크레이션, 대화, 중요한 일에 대한 논의, 가족행사 등으로 조작화.

주관적 자녀 유대관계: 자녀와의 이해, 사랑, 신뢰, 존경, 공정성 등으로 조작화.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두가지 질문에 조사대상자들의 응답내용 분포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두번째로 현재의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가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첫번째 질문과 두번째 질문을 각각 0~1점의 척도를 바꾼 후 두값을 합하여 생활 만족도의 종합점수를 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생활 만족도 평균점수는 1.10(2점 만점)으로 약간 만족하는 편으로 해석된다.

〈표 9〉 생활만족도 분포(1)

생활만족도 항목	그렇다(%)	그렇지 않다(%)
생활이 너무 단조로워 하루하루가 지루하다	148 (46.5)	170 (53.5)
가끔 사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171 (53.8)	147 (46.2)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	201 (63.2)	117 (36.8)
마음이 뿌듯할 때가 많다	177 (55.7)	141 (44.3)
앞으로 즐거운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산다	218 (68.6)	100 (31.4)
매일 하는 일들이 보람있다	148 (46.5)	170 (53.5)
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	171 (53.8)	147 (46.2)
요즈음은 하루하루가 즐겁게 느껴진다	136 (42.8)	182 (57.2)

〈표 10〉 생활 만족도 분포(2)

현재 생활의 만족도	N	%
매우 만족한다	19	6.0
만족한다	113	35.5
그저 그렇다	171	53.8
불만이다	10	3.1
매우 불만이다	5	1.6
계	318	100.0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생활 만족도(〈표 11〉)

## ① 연령 및 홀로 된 때의 연령

연령에 따른 생활 만족도는 평균점수간에 의미있는 차이( $P<0.05$ )를 나타냈다. 연령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는 66~70세와 76세 이상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생활 만족도

변 인		생활만족도 평균점수	표준편차	F값	Scheffe-Test
연령	60 ~ 65	1.12	0.38	3.21*	
	66 ~ 70	1.21	0.40		
	71 ~ 75	1.11	0.40		
	76세 이상	1.02	0.05		
건강상태	아주 건강하지 않다	0.01	0.46	6.26***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1.02	0.47		
	그저 그렇다	1.14	0.40		
	건강한 편이다	1.15	0.40		
	아주 건강하다	1.33	0.40		
종교	기독교	1.17	0.42	2.58*	
	불교	1.14	0.41		
	천주교	0.93	0.37		
	유교	1.16	0.25		
	기타종교	0.91	0.40		
생활수준	하	0.96	0.45	3.51*	
	중	1.11	0.39		
	상	1.32	0.45		
용돈만족도	매우 부족하다	0.91	0.46	3.44**	
	부족하다	1.06	0.37		
	그저 그렇다	1.03	0.36		
	만족한다	1.20	0.45		
	매우 만족한다	1.14	0.66		
자녀와의 유대관계	객관적	하	0.93	26.17***	A
		중	0.98		A
		상	1.25		B
유대관계	주관적	하	0.90	20.97***	A
		중	1.01		A
		상	1.20		B
가족내 지위	전혀 그렇지 않다	0.65	0.37	15.59***	
	별로 그렇지 않다	0.82	0.26		
	보통이다	1.03	0.35		
	대체로 그렇다	1.15	0.37		
	항상 그렇다	1.28	0.43		

변 인		생활만족도 평균점수	표준편차	F값	Scheffé-Test
가정 내 역할 유형	경제담당	거의 자신이 하지 않는다	1.02	5.87**	A
	및 대표자 역할	가끔 자신이 한다	1.18		
		주로 자신이 한다	1.15		
	의사결정자 역할	거의 자신이 하지 않는다	0.95	11.36***	A
		가끔 자신이 한다	1.16		
		주로 자신이 한다	1.18		
친구 유무	있다	1.13	6.34**		
	없다	1.00			
사회 활동 참여 정도	하 상(0~10점)	1.07	3.66*		
	중(11~20점)	1.23			
	상 하(21~30점)	1.29			
친척 과의 교류 정도	거의 매일 만난다	1.11	5.36***	A	
	일주일에 한번	1.15			
	한달에 한번	1.22			
	일년에 한번	0.85			
	명절, 제사새 만난다	1.02			

\* P<0.05    \*\* P<0.01    \*\*\* P<0.001

한편, 홀로 된 때의 연령, 홀로 산 기간별 생활 만족도는 평균점수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② 건강

건강상태에 따른 생활 만족도는 평균점수간에 유의한 차이(P<0.001)를 나타냈다.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건강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한 최혜경(1985)의 연구를 지지해준다. 즉, 신체적으로 건강할수록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여겨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상태별로 집단간에 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Scheffé-Test를 한 결과 「아주 건강하지 않다」는 집단과 「그저 그렇다」 「건강한 편이다」 「아주 건강하다」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③ 종교

종교에 따른 생활 만족도의 평균 점수는 유의한 차이(P<0.005)를 나타냈다. 그러나 종교 유무별에 따른 생활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P<0.05)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장상희(1983), 김종숙(1987)의 연구에서 종교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견해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맹희재(1985)는 종교

가 있는 노인이 종교가 없는 노인보다도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④ 생활수준

생활수준에 따른 생활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유의한 차이(P<0.005)를 나타냈다. 생활수준은 직접적으로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른 생활조건들을 결정지워 줌으로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조사대상의 생활수준에 따른 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Scheffé-Test를 한 결과 생활수준이 「상」인 집단과 「하」인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⑤ 용돈 만족도

용돈 만족도에 따른 생활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유의한 차이(P<0.01)를 나타냈다. 즉 자신의 용돈에 만족하는 노인일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용돈 만족에 따른 생활 만족도의 차이는 「만족한다」는 집단과 「그저 그렇다」는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 3. 가족 환경적 변인에 따른 생활 만족도

#### ① 자녀 유대관계

객관적 및 주관적 자녀 유대관계에 따른 생활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유의한 차이( $P<0.001$ )를 나타냈다. 즉, 자녀와의 유대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혜경, 1985, 한임섭, 1987, 김종숙, 1987). 결국 여자노인은 남자노인보다 가족 지향적이므로 가족생활 특히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 ② 가족내 지위

가족내 지위에 따른 생활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유의한 차이( $P<0.001$ )를 나타냈다. 즉 가족내의 지위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병숙(198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긍정적 자기 이미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③ 가정내 역할

가정내 역할에 따른 생활 만족도 평균점수는 경제담당 및 대표자 역할과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에서만 유의한 차이( $P<0.01$ ,  $P<0.001$ )를 나타냈다.

### 4. 사회적 관계 변인에 따른 만족도

#### ① 친구관계

절친한 친구유무에 따른 생활 만족도 평균점수는 유의한 차이( $P<0.01$ )가 나타났다.

#### ② 사회활동 참여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생활 만족도 평균점수는 유의한 차이( $P<0.05$ )가 나타났다. 즉 홀로 된 여자노인의 사회활동에의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친척과의 교류

친척과의 교류 정도에 따른 생활 만족도 평균점수는 유의한 차이( $P<0.001$ )를 나타냈다.

### 5. 홀로 된 여자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홀로 된 여자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여겨진 14개의 독립변인과 생활 만족도와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12>과 같다.

상관관계는 각 독립변인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라기 보다는 독립변인들간의 인과관계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독립변인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인들을 하나의 회귀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여 회귀계수와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구하였다. 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에 Durbin-Watson계수가 1.989이므로 잔차간에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회귀분석모델은 적절하리라고 본다.

<표 13>에서 보면 이 모형은 종속변인인 생활 만족도를 35.6%를 설명함으로써( $R^2=0.36$ )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6.39$ ,  $P<0.001$ ). 회귀모형에 의하면 14개의 독립변인중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가족내 지위( $\beta=0.26$ )가 가장 크고, 다음이 객관적 자녀유대관계( $\beta=0.21$ ), 주관적 자녀유대관계( $\beta=0.19$ ), 건강( $\beta=0.15$ ) 그리고 동거가족의 생활수준( $\beta=0.15$ )의 순으로 나타났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홀로 된 여자노인의 실태 및 생활 만족도를 파악하여 그들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중요도를 분석함으로써 홀로 된 여자노인의 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생활 방향 제시와 더 나아가 복지지원 대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홀로 된 여자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선행 연구자료 빈약, 연구대상자의 표집범위가 좁았다는 점과 면접시 응답자가 자녀와 관련된 내용의 질문일 경우 자녀에게 유리하게 응답하는 사회적 바람직성 등의 경향 등 제한점이 있다.

본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독립변인과 증속변인간의 상관관계

	연령	홀로된 연령	홀로산 햇수	간강	종교	용돈만족 도	생활수준	가족형 태	자녀유 대관계	가족내 지위	가정내역 합	친척교류	사회활 동	친구관 계
생활만족도	-0.11*	-0.01	-0.05	0.25***	0.07	0.16**	0.13*	-0.07	0.42***	0.40***	0.15**	-0.15**	0.17**	0.15**
연령	1.00													
홀로된연령	0.23***	1.00												
홀로산햇수	0.34***	-0.84***	1.00											
간강	-0.01	-0.08	0.07	1.00										
종교	-0.07	-0.02	-0.02	-0.03	1.00									
용돈만족도	0.01	0.05	-0.05	0.07	-0.07	1.00								
생활수준	0.11	0.04	0.02	0.04	-0.01	0.09	1.00							
	-0.16**	-0.02	-0.07	0.08	0.01	0.02								
가족형태	-0.16**	-0.05	-0.05	0.03	0.02	-0.07	-0.86***	1.00						
							0.84							
자녀유대관계	-0.12*	-0.07	-0.00	0.15**	0.06	0.14*	-0.07	-0.10	1.00					
	-0.05	-0.06	0.03	0.12*	0.07	0.21***	-0.08	-0.01						
가족내지위	-0.10	-0.09	0.03	0.16	0.07	0.01	-0.01	-0.02	0.33***	1.00				
	-0.24***	-0.13*	-0.01	0.06	0.03	-0.16**	0.40	0.48***	0.02	0.18**				
가정내역합	-0.14*	-0.09	0.00	0.06	0.08	-0.15**	-0.13	-0.05	0.08	0.17**	1.00			
	-0.28***	0.01	-0.16**	0.05	0.10	0.06	0.44	0.44***	0.10	0.17**				
	-0.22***	-0.03	-0.09	0.13	0.06	-0.03	0.27	0.27***	0.22	0.38***				
친척교류	0.01	-0.06	0.06	-0.12*	-0.02	-0.13*	-0.03	0.01	-0.14*	-0.06	0.12*	1.00		
							-0.06		-0.12*		-0.02			
사회활동	-0.17	-0.09	-0.01	0.10	0.38	-0.07	0.05	0.00	0.14	0.09	-0.04	-0.12*	1.00	
							0.07		0.08		0.12*			
											0.16**			
친구관계	-0.10	-0.06	-0.00	0.13*	0.15**	0.02	0.01	-0.02	0.18**	0.05	-0.00	0.01	0.24**	1.00
							0.03		0.12*		0.12			
									0.12*		0.11*			
											0.14*			

1) 홀로 된 여자노인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졸 이하의 저학력 소지자가 많으며 자신의 용돈에 만족하는 경우에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하다고 평가한 노인은 36.2%, 기혼자녀와의 동거 비율은 74.2%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은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대부분 중류생활이었으며 하류생활은 8.4%였다. 기혼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들은 중류생활 58.6%, 하류생활 35.3%로 나타나 기혼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의 생활수준이 훨씬 낮았다. 76.4%가 종교를 갖고 있으며 각종 사회활동의 참여정도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가족내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높은 편이며, 절친한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5.5%로 나타났고, 친척과의 접촉빈도는 큰 행사(제사, 명절)때나 만나는 정도이며(39.3%), 가정내 역할 수행은 어느정도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는 편이며 가끔씩 의사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경제나 대표자의 역할은 저조한 편이다. 자녀와의 객관적, 주관적유대관계는 대체로 좋은 편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생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2) 사회 인구학적 변인중에서 연령( $P<0.05$ ), 건강( $P<0.001$ ), 용돈 만족도( $P<0.001$ ), 생활수준( $P<0.05$ )이 홀로 된 여자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경제적인 요인이 생활 만족도에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3) 가족 환경적 변인은 가정내 역할( $P<0.01$ ), 자녀 유대관계( $P<0.001$ ), 가족내 지위( $P<0.001$ ) 등이 홀로 된 여자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형태는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동거 여부의 문제가 아닌 가족관계의 질이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4) 사회적 관계 변인은 친척 교류( $P<0.05$ ), 친구 관계( $P<0.01$ ) 등에서 홀로된 여자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친구관계에서는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홀로 된 여자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중요도는 가족내 지위( $\beta=0.26$ )가 가장 크고 다음이 객관적 자녀 유대관계( $\beta=0.21$ ), 주관적 자녀 유대관계( $\beta=0.91$ ), 건강( $\beta=0.15$ ) 그리고 동거가족의 생활수준( $\beta=0.15$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5.6%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홀로 된 여자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내 지위로 나타났다. 가족내 지위란 사회적 부양없이 자녀가 정서적, 경제적, 신체적 부양체제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녀와의 유대 즉 자녀의 의무감과 애정적 유대를 배경으로 여자노인 자신이 인지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가족속에 통합될 수 있는 긍정적 자아개념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개발의 노력을 시도할 때 스스로 지위를 높게 인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자녀에게는, 홀로 된 어머니의 대부분이 의존적으로 사회화되어 자녀와의 동거가 일반적인 과도기적 상황속에서 높은 의무감의 인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가족관계가 동료적인 경향으로 변해가는 추세에서 일방적인 자녀의 의무 요구는 점점 어려워지므로 상호존중과 의무이행 및 애정과 친밀감을 나누는 애정적 유대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아직까지 세대간의 관계에 대한 규범이 정립되지 못한 실정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시도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개인과 가족에 의한 방안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나 국가의 지원이 요구된다. 즉 노인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부양기능강화를 위한 부양수당지급의 현실화, 면세혜택의 확대 등이 요구된다.

2) 홀로 된 여자노인들은 건강이 나쁜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로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 이들이 손쉽게 건강상담이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경제적인 면은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본적인 요건임을 감안할 때 여자노인은 저학력으로 인하여 전문지식이나 기술 부족, 노령 등으로 제한된 낮은 임금직종에 종사하거나 무직으로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데 노후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홀로 된다는 것은 경제적 빈곤을 더욱 가중시키므로 연금제도와 같은 각종 지원대책이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시설노인이나 농어촌의 홀로 된 여자노인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후속연구가 시도되리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 1) 구자순, 한국여자미망인, 여성연구 제1권 1호, p. 108, 1983.
- 2) 김명자,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제20권 3호, pp. 45~54, 1982.
- 3) 김선희, "노인의 신체적 노화와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석사학위 논문, 1989.
- 4) 김중숙, "한국 노인의 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pp. 12~18, 1987.
- 5) 김태현, "노년기의 생활 만족도 연구", 성신여대 논문집 23, pp. 181~199, 1986.
- 6) 맹희재, "재가노인의 고독감에 대한 연구", 숙명여대석사학위논문, 1985.
- 7) 박충선,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여성연구 제8권 3호, 1990.
- 8) 서병숙, "노후 적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pp. 47~53, 1988.
- 9) 윤 영, "노인의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pp. 12~18, 1990.
- 10) 윤종주, 우리나라 노년연구의 성장 추이 및 현황, 한국노년학 제8권, pp. 7~8, 1988.
- 11) 이남균, "노년기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아산연구 논문집. Vol.1, 1989.
- 12) 이옥재, "가사영역에서 본 한국 가족의 역할 구조": 가족 복지적 관점에서-, 부산대학교 논문집 제21집, 1979.
- 13) 이윤숙, "여성노인은 더욱 문제", 「노인문제 그

현주소」, 서울: 중앙일보사, p. 99, 1984.

- 14) 장상희, "대도시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부산시를 대상으로, 사회조사 연구 제2권 1호, pp. 46~64, 1983.
- 15) 조병은, 한국 여성노인 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여성연구 8권 3호, pp. 5~26, 1990.
- 16) 조병은, 부모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 인생 만족도, 한국노년학 No.10, pp. 105~124, 1990. 12.
- 17) 최신태·김신태, 노인과 사회, 서울: 고시연구사, 1983.
- 18) 최은영, "노년기 생활 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19) 최재석, 현대가족 연구, 서울: 일지사, 1982.
- 20) 최혜경, "노인의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가족 부양 체계를 중심으로 한 인과모형의 검증,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pp. 35~37, 1985.
- 21)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서울: 아산복지사업재단, 1984.
- 22) 한국인구보건원, 노인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 1989.
- 23) 한임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제활동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pp. 45~46, 1987.
- 24) 현두일, "노인문제에 관한 연구", 건대 학술지 제16집, pp. 309~333, 1973.
- 25) Bell, R.R., Marriage and family interaction, Homewood IL: Dorsey 1963 in Harold Cox (ed), Later Life, The realities of Aging,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 188, 1984.
- 26) Bull, C.N & J.B, Aucoin,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A Replication Note", Journal of Gerontology 30. No.1, pp. 73~76, 1975.
- 27) Chamman, N.J & M.Beaulet, "Environmental predictor of Well-Being for at-Risk older adults in midsized city", Journal of Gerontology 30. No. 2, pp. 237~244, 1983.
- 28) Chafield, W.F., "Economic and Sociological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Aged",

- Journal of Gerontology 32, No.1, pp. 593~599, 1977.
- 29) Cutler, N.E., "Age Variation in the dimensionality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34, 1979.
- 30) Edwards J & D.Klemmack,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 Reexamination", Journal of Gerontology 28, pp. 497~502, 1973.
- 31) Kalish, R.A., Late Adulthood: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Berkeley: Cole Publishing Co, p. 1, 1975.
- 32) Knapp, M., "Predicting the dimension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31, No.5, pp. 595~604, 1976.
- 33) Liang J.L., Dvorkin, E & F. Mazian, "Social Interaction & Morale: A Re-examination", Journal of Gerontology 35, No.5, pp. 746~757, 1980.
- 34) Medley, M.L., "Marital adjustment in the post-Retirement Years" The family coordinator, Jan., p. 488, 1977.
- 35) McClelland, K.A., "Self-conceptions and Life Satisfaction: Integrating aged Subculture and Activity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36, pp. 723~732, 1982.
- 36) Moberg, D.O., "Religion in the Later years" the Daily needs and Interests of older persons, ed, AM Hoffman, Springfield III Charles, C Thomas, 1970.
- 37) Morgan, I.A., "A Re-Examination of widowhood and Morale", Journal of Gerontology 31, No 6, pp. 687~695, 1976.
- 38) Quinn, W.H.,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the Family Vol.45, pp. 57~73, 1983.